

당뇨! 당뇨 근본 원인 기능 개선제
프로지 골드

- 혈당 조절 (공복혈당, HbA1c)
- 인슐린 분비 및 저항성 개선

PRO-Z USA (213)434-1170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August 19, 2022 Vol. 826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 풍요로운 대한민국 토대 마련”

남가주 한인단체 연합
광복 77주년, 건국 74주년 기념식

남가주 한인기독단체와 애국보수단체가 연합으로 개최한 광복 77주년 기념예배 및 대한민국 건국 74주년 남가주 기념 행사가 상화리에 열렸다.

지난 14일, 가든스위트호텔 2층 연회실에서 진행된 기념 예배와 행사는 대한민국 광복과 건국 배경과 의미가 자세히 소개됐으며, 기독교 입국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업적이 소개돼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이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됐음을 확인하며, 민간 외교관으로 한·미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미주 한인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남북한 통일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됐다.

기념식 강사로 나선 전 국방부 장관 권영해 장로는 미국에 의해 일제 36년 식민지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광복(1945년 8월 15일)의 역사와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의해 건국(1948년 8월 15일)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망했다.

권영해 장로는 “광복은 미국이 일본에게



광복 77주년, 건국 74주년 기념식 주요 참석 인사 기념촬영 ©기독일보

항복을 받아서 얻은 날이지만, 건국일은 대한민국이 독립국가로 태어난 날”이라며 “이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호칭을 건국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건국일을 성대히 기념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탄생을 경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로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했고,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제는 남북통일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를 전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광복을 맞아

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념행사를 준비한 김영구 목사는 “올해 기념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건국 정신을 바로 알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가주 모든 한인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국가 건립 비전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을 바로 알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목사는 이어 “지난 5년간 한국의 좌파 정권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업적 지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붕괴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다”며 “이제라도 미주 한인 1세대

과 특별히 자라나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진 대한민국의 역사 이해를 돕고 내 나라, 내 민족의 바른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를 전한 미주한인재단 LA 이병만 회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우리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위해 군사·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며 “지금도 억압과 반 인권적 착취 속에 신음하는 북녘 땅의 2천 5백만 동포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워가자”고 독려했다. 김동욱 기자

미 텍사스 대형교회, 동성애 반대하며 UMC 탈퇴 결정

미국 텍사스주 우드랜드의 대형교회 중 하나인 우드랜드감리교회가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탈퇴를 결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우드랜드교회는 지난 7월 1만 4200명의 교인 중 3천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96.3%인 2678명이 교단 탈퇴를 지지했다.

마크 소렌센 우드랜드교회 담임목사는 교회 웹사이트에 게재한 영상에서 “이날 투표는 우리가 하나의 비전과 사명으로 단결되어 있음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교단의 계속된 분열과 의견 차이를 넘어설 준비가 돼 있다. 변하지 않기 위해 변화하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이번 투표로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렌센은 UMC에 남길 원하는 교인들에게도 “축복한다.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서로를 축복해야 할 때”라며 “여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에 부르신 모든 사역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세우도록 부름 받았다”고 했다.

UMC 텍사스 연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10개 이상의 지역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텍사스 연회는 오는 12월 3일 휴스턴에서 특별 세션을 개최하여 해당 교회들의 탈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 텍사스주 스프링 소재 페이스 브릿지교회도 교인 1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549명 전원이 연합감리교회로부터

탈퇴를 지지했다.

교단지인 UM 뉴스에 따르면, 켄 워렌 인 브릿지교회 담임목사는 “교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실적이며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는 페이스 브릿지를 지키기 위해 옹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을 했다”고 선언했다.

올해 5월 8일에는 UMC에서 분립한 새로운 보수 신학 교단인 ‘세계감리교회’(GMC)가 출범을 공식화했다.

김진영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벼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배크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한미 양국 발전 헌신 프론티어 되자” LA 교계 광복 기념

남가주 교계 연합회, 제77주년 광복 감사 부흥집회

미국 남가주교계연합회(이하 연합회) 주관 제77주년 광복 감사 부흥집회가 지난 14일,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개최됐다.

연합회 상임대표회장 신승훈 목사 사회로 시작된 집회는 진건호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의 기도, 지경 교수의 특송, 연합찬양대의 찬양 후 예장 합동 직전총회장 소강석 목사(용인 새에덴교회)가 ‘광복의 언덕 위에 섬김의 선사인(에스라 1:1-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소강석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910년 조선이라는 나라는 존재조차 없어지고 한 줄기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침내 독립투사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다. 게다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흥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요 인사들의 기념촬영 모습.

부흥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말 미국 동부 워싱턴 참전용사 추모의벽 완공식 이후 보름여 만에 미국 서부를 방문한 그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일본 국민으로 살고 있을 것이고, 이 땅이 공산화됐다면 우리는 공산군의 총부리 아래 신앙의 자유도 없이 북한 주민처럼 살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섭리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

다”고 강조했다. 소 목사는 “지난날 민족의 비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다음 세대에 우리 역사를 가르치고 민족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강석 목사는 “여러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고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인의 아이덴티티와 프라이드를 심어주셔야 한다. 그래야 한국인으로서 정체성도 확실하게 가지면서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

다”고 전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결코 밀리지 않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예가 될 뿐 아니라 더 많은 정치적 인사를 지도자가 나와 미국과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프론티어가 될 것이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성도들 되시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시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후 정요한 목사(LA평통 종교분과 위원장)가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과 국가를 위하여’, 박효우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가 ‘이민교회와 한국·세계 교회를 위하여’, 서사라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이사장)가 ‘여종들 사역의 세계화를 위하여’, 김은목 목사(평화교회)가 ‘이민교회와 차세대를 위하여’ 특별기도했다.

1부 예배는 이정현 목사(사무총장)의 광고와 이병희 목사(세계복음선교회 대표)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2부 특별순서로는 기수단 입장과 국민의례, 기수단 퇴장, 헤세드찬양 율동선교단 축하공연, 류당열 목사(공동회장)와 박형만 장로(남가주한국학원 이사장)의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이대웅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한국·우크라이나 연합 자선음악회 연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한·우 연합음악회 준비위원들이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9월 18일(주일) 오후 5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

미주성시화 운동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가 남가주 한인음악가협회(회장 이동욱)와 우크라이나 문화센터, 우크라이나 아트센터 등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및 병원 지원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개최한다.

내달 18일(주일) 오후 5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에서 개최되는 음악회는 한국과

우크라이나 음악인들이 함께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염원하는 자리로,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전액 우크라이나의 전쟁 부상자와 난민, 병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슬픔과 공감, 승리를 주제로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와 우크라이나 커뮤니티가 한 자리에 모여, 양국 음악가들의 협연을 들으며 연대감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음악회는 한·우 연합 교향악단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소프라노 이영주, 마가리타 쿠지나, 테너 위켄 김, 최원현, 오우영, 보컬 아시아 고스카 등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각

4명의 솔리스트가 노래하며, 아리나 볼로쉬나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또 외대합창단과 미주 여성 코랄, LA 목사 중창단 등 70여 명의 합창단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게 된다.

송정명 목사는 “우크라이나는 지난 5개월 동안 민간이 5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8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발생했다”며 “6.25라는 민족적 수난 속에 수많은 도움을 받았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유철 목사는 “성경에도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는데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겪는 아픔을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위로와 전하는 일에 한인 교회와 커뮤니티가 함께 해 달라”고 전했다.

맥심 쿨렌 교수(UC 산타바바라)는 “이러한 교류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국이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 믿는다”며 “우크라이나 후원을 위한 음악회 개최에 감사드리며 양국의 실력 있는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수준 높은 연주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음악회 후원 및 참석 문의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김재권 장로(213-820-3850) 또는 사무국장 박인호 목사(213-663-2228)로 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교협이 주최한 8.15 광복절 기념 감사예배

남가주교협 제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감사예배 드려

남가주교협(회장 김용준 목사)이 개최한 제77주년 8.15 광복절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13일, 한미장로교회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는 최영봉 목사의 사회로 김창영 목사가 기도한 후, 곽태진 목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정완기 목사가 “눈물의 씨와 기쁨의 열매”(시편 126: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조준석 목사가 특별찬양을 했으며 김용준 목사가 환영사를 전했다. 축사는 남가주 평통 이승우 회장, 박준형 목사가 전했으며 윤성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인규 기자

2022다니엘기도회 & 꿈이있는미래

미국동부지역 CONFERENCE

엔데믹(endemic)시대의 교회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한 목회전략 Conference에 초대합니다.

- 대상 목회자, 사모, 주일학교 사역자
- 등록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 등록 방법 및 문의 인터넷 등록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미국Conference' 신청페이지 작성 등록 및 문의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 21danielprayer@gmail.com ☎ 02-6413-4922



김은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오른교회 담임)



주경훈 목사 꿈이있는미래 소장



주성호 목사 다니엘기도회 운영팀장

- 1차 New Jersey Conference
 - 일시 2022.9.13 (화) 10:00~15:00
 - 장소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담임목사) 80 Commerce Way Hackensack, NJ 07601 ☎ 201-461-1225
- 2차 Washington Conference
 - 일시 2022.9.19 (월) 10:00~15:00
 - 장소 와싱턴중앙장로교회(류응렬 담임목사) 15451 Lee Hwy, Centreville, VA 20121 ☎ 703-815-1200



등록 QR 코드

사전등록 혜택 ~ 8월 31일 까지

- 강사 저서 증정
- OBOX(기독교 콘텐츠 OTT 서비스 전용셋탑)
- 꿈이패키지(샘플북 & 콘텐츠usb)
- 한국 방문시 오른교회 사역탐방 기회 제공
- '미국 동부 사랑의헌금 프로젝트' 기회 제공
 - 1) 대상 : 뉴욕, 뉴저지, 워싱턴 지역의 한인교회 · 재정 성도 30명 이하의 교회 · 교회 렌트 비용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교회 · conference 사전 등록 및 다니엘기도회 참여를 희망하는 교회
 - 2) 접수 방법 및 기간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8월 31일까지 접수
 - 3) 지원대상자 선정 : 심사 후 최종 대상자 선정하여 conference 당일 사랑의헌금 지급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터뷰] 벨리연합감리교회 제6대 담임 안정섭 목사



지난달 1일 벨리연합감리교회 제6대 담임으로 파송받은 안정섭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 제6대 담임으로 안정섭 목사(54)가 부임했다.

지난 달 1일 벨리연합감리교회로 파송 받은 안정섭 목사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목회 비전을 가지고 일상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안 목사는 부임 후 한 달 동안 말씀 사역

에 전념했다. 주일 설교뿐 아니라 수요 성경학교, 매일 새벽기도회까지 인도하며 구약과 신약을 시대별, 그리고 문학별로 구분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뼈대를 세웠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구약과 신약의 초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면서, 우리가 동행하고 따라야 할 메시아인 예수 그

리스도를 자세히 소개했다.

“예배 전에 ‘나의 소망 고백문’을 낭독하는데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라고 모두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단계를 넘어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안 목사는 교회에 오면 누구나 웃을 수 있고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이 웃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그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서인데, 더 나아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기 위해서”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참된 행복을 누리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안 목사는 올해로 목회 20년을 맞았다. 행

복한 시간도 있었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도 있었다. 그간의 목회 가운데 모든 과정 가운데 그가 얻은 깨달음이 있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 목회’를 이어가고 싶다고.

“매일 기도하는 기도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열방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아니라, ‘높임 받는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보다는 내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름 받은 그 자리에서 소박할지 모르지만 존경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게는 너무 귀합니다.”

한편 안정섭 목사는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에모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덴버 대학 아이리프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3년 UMC 준회원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2007년 UMC 정회원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인천만석감리교회에서 30년을 목회하고 은퇴한 안병원 목사가 부친이다.

이인규 기자

인랜드교회 ‘아이자야 씹스티원’ 초청 찬양집회 연다

“Your Kingdom Come” 9월 17일(토) 오후 5시

LA 동부 ‘인랜드교회’는 9월 17일(토) 오후 5시, 한국의 예배 사역팀인 ‘아이자야 씹스티원(리더 조성민 간사, Isaiah 6tyOne)’을 초청해 찬양집회를 개최한다.

“Your Kingdom Com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집회는 팬데믹 기간 움츠려 들었던 예배자들에게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자야씹스티원(은 이사야 61장 말씀을 바탕으로 ‘예배를 통한 Restore(회복), Rebuild(다시 세움), Renew(새롭게)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세대와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비전 삼고, 이를 찬양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예배팀이다.

인랜드교회 HIS 청년담당 정산 목사는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 각 교회에서 누리기 힘들었던 경배와 찬양의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영적으로 회복되길 소망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부 지역의 모든 예배자들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월드미션대학교 100만 달러 릴리 펀드, 디지털 시대 영성 확립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릴리 재단(Lilly Endowment Inc.)으로부터 1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받았다.

월드미션대는 향후 5년 동안 100만 달러의 펀드를 ‘디지털 시대의 영성 매뉴얼’ 작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영성 형성’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영성형성’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역사적,

철학적 토대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기독교 영성 전통과 현대 영성 연구, 그리고 영성을 모범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단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다.

종교, 교육 및 공동체 개발 분야를 지원하는 릴리 재단(Lilly Foundation)은 앞서 북미 신학교육 인가기관 가운데 하나인 ‘북미 신학대학원협회’(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공조하고 그랜트를 지원함으로써 차세대 목회 리더십을 개발하고 신학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0여 ATS 회원 학교에 이와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영성형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릴리 재단은 이를 승인하고 펀드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임성진 총장은 “미래는 디지털 사회로 더욱 심화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신학교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영성’이라며 “디지털 시대의 영성 매뉴얼’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교회 목회사역은 물론 신학교육에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 총장은 이어 “불편한 소통’보다는 ‘편리한 단절’을 선호하는 온라인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더 잘 교육하고, 혁신적이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현장의 목회자들과 협업을 하면서 현장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아가 신학교육에도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창립 감사예배 및 임직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크렌셔 장로교회가 창립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립보서 2:5)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겸손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2년 8월 28일(주일) 오전 10시
- **장소** : 1060 Crenshaw Bl. 2nd Fl. LA, CA 90019
- **문의** : 한현중 담임목사(213-407-1600)
조영철 장로(213-332-9511)



은퇴장로 : 박대원, 주리돈 **사무장로 추대** : 김제임스, 서진호
명예장로 : 이영두 **권사임직** : 이경미, 조원희



한현중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CRENSHAW PRESBYTERIAN CHURCH

OC교계 제77주년 광복절 연합예배 및 성가제 성황

OC지역 5개 기독교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가 주관한 제77주년 광복절 연합예배가 지난 14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광복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나선 일본인 목회자 가와노 료헤이 목사는 “한국에 있는 일본선교사의 안내로 한국의 독립기념관을 방문하고,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일들에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며 강단에서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요 14: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가와노 료헤이 목사는 “일본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며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와노 료헤이 목사는 LA에서 가장 오래된 일본교회인 센터리리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했으며 남가주일본인목회자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남가주 일본선교교회 사

무총장을 맡고 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심상은 목사는 “광복절이 되면 한국의 적이 되는 나라가 일본”이라며 “이제는 원한과 분노를 넘어 우리를 꺾박했던 일본을 선교하는 것이 광복의 완성이라고 생각해 일본인 목사님을 강사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전한 연합회 윤우경 이사장은 “코로나 펜데믹을 이기고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역사는 반드시 기억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화합의 새로운 역사로 이어지는 오늘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날 특별순서로 나선 뮤지컬 ‘도산’의 주연배우 4명은 독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일대기를 노래해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성가제에는 남가주 사랑의교회 카리스찬양대, 감사한인교회 할렐루야성가대, 새생명한인교회 마하나임찬양대, LA목사중창단, 갈보리여성중창단이 참여했다. 마지막 순서는 남가주 사랑의교회 김동근 지휘자의 지휘로 모든 출연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이라이



OC교계 제77주년 광복절 연합예배 및 성가제 주요 참석자 기념촬영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트를 장식했다.

한편 이날 연합예배는 신용 회장의 사회로 윤우경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OC목사회 회장 박용일 목사가 기도했으며, OC한인여성목사회 박정희 목사가 봉헌기도, OC목사회 이사장 김명찬 목사가 축도했다. 또 OC교

협 이사장 신원규 목사, 연합회 초대회장 양문국 목사를 비롯해 영김, 유수연, 서니박 등 정치인들, 권석대 OC한인회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연합회 초대회장 양문국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은혜선교교회 김창곤 담임 목사 취임

“영혼 구원해 제자 삼는 믿음의 공동체 될 것”

남가주은혜선교교회(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는 지난 14일, 김창곤 담임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리고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교회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창곤 목사는 합동신대학원을 졸업하고 2005년 10월 합신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2004년에 도미해 2005년부터 포도원교회에서 2022년 6월까지 17년 6개월을 부목사로 섬기다 이번 남가주 은혜선교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김창곤 목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겠다”면서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남가주은혜선교교회 김창곤 담임 목사 취임 감사예배 순서 인도자 기념촬영

사역을 통해 세계 선교에도 힘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상처 받는 영혼들이 치유의 공동체 소위된 이

웃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고 취임인사를 전했다.

이날 예배는 최동철 장로의 인도로 김종경 목사가 대표기도 한 후에 김광삼 목사가 요 21장 15-18절을 본문으로 “내양을 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 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문답 이후에 내

양을 치라는 목양사역을 위임하셨다”면서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목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사역이다. 말씀의 끝로 영혼을 살리고 제자삼는 일에 전념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를 전한 정영민 목사는 “지난 18년간 포도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동역해주신 김창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가주은혜선교교회에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김창곤 목사님이 온 성도가 하나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가주은혜교회가 후원하는 김문일 선교사(블라디보스톡), 김용운선교사(필리핀), 김현주선교사(남아공)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또한 소망중창단의 특별찬양과 윤삼혁 장로의 디지털 호른 특별 연주가 있었다. 모든 예배는 김광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남가주 은혜교회 주일예배는 오전 11시에,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에 드린다. 문의는 전화 818-579-5161로 할 수 있다.

이인규 기자

세계선교교회 장학금수여식 “하나님 나라 일꾼 세운다”



세계선교교회 장학금수여식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 목사)는 지난 7일 장학금수여식을 갖고 6명의 학생들에게 각 1천 달러를 전달했다.

김창섭 목사는 “장학금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장학생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꾼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한 교우들과 학부모들은 장학생들을 축하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학생비자
- 가족초청 이민업무
- 체류기간 연장
- 시민권 취득
- 추방 재판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尹 대통령 “日, 함께 힘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자유’ 33번 언급

윤석열 대통령일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가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3번 언급하며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이 1945년 광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었다”며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

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신천지 이만희, 횡령 유죄 확정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



대법원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고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쓴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

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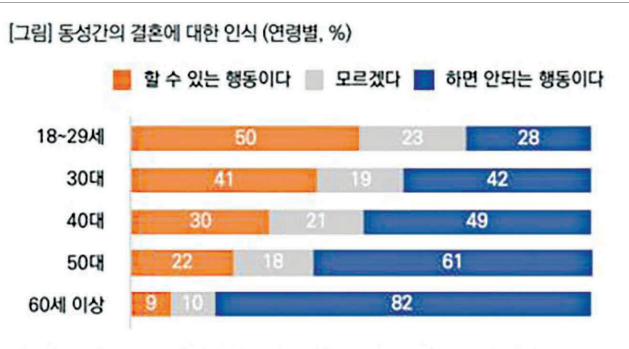
앞서 이 씨는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 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쓸 배구 임비용 명목, 해외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 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를 이용해 벌린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이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건, 신천지 교인명단은 역학 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가 빠진 명단을 제출했다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인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기소 이후에 신설됐으므로 소급해서 이 총회장을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김진영 기자

한국 20대 청년 동성결혼 찬성 50%



60대 이상 동성 결혼 반대 82%로 압도적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동성 간 결혼에 대해 57%가 반대, 27%가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9일 발표한 주간 리포트 ‘넘버즈’ 제155호를 통해 소개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동성 결혼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인식은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8~29세 응답자들 사이에선 절반인 50%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답했다는 것.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응답은 28%였다.

이 찬반 비율은 30대에서 41%대 42%로 역전되고, 40대에선 30%대 49%, 50대에선 22%대 61%로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진다. 그리고 60대 이상에선 9%대 82%로 동성 결혼에 대한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2020년 낙태 3만2천 건 추정... 2018년 이후 증가세

연구소는 또 이번 리포트에서 낙태(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이 조

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만 15~49세 여성 8천5백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약 3만2천 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 17만 건에 달했던 것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낙태 추정 건수는 2018년 약 2만3천 건 이후 2019년 약 2만7천 건, 그리고 2020년은 2018년 대비 약 38% 증가한 3만2천 건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낙태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낙태 당시 평균 연령(2020년)은 만 27세로, 2018년의 평균인 만 28세와 비교해 1살 정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의 연령대별 낙태 경험자 비율은 △19세 이하 4% △20~24세 32% △25~29세 34%로, 낙태 경험자 10명 중 7명(70%)이 20대 이하 여성이었다.

김진영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수해와 코로나 피해 가정 긴급 지원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추석을 앞두고 소외계층 가정에 긴급히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모든 가정에 이와 별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앞서 교회 측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소외계층 가정들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106억 원을 지원한 바도 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14일 주일예배 시간을 통해 “수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교구 별로 긴급히 조사하여 두 주 안에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기로 했다”며 “이와 별도로 추석을 맞아 제2차 영세소상인 및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 50억 원을 풀어 섬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일 때 세상도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교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CDTV 미주기독교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정보
기독교일보 유튜브

담임목사 청빙

THE WAY CHURCH

한길교회는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교단에 속한 개혁주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을 드러내며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남가주 LA에 위치한 한길교회(The Way Church)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이 확고한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청빙교역자 - 담임목사

지원자격

- 10년 이상 목회경험 (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하신 M. Div. 학위 취득자
- PCA교단 멤버이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 (본교회 지정 양식-교회 홈페이지 <http://churchtheway.com>에서 다운로드)
- 본인소개, 신앙고백서/ 목회비전
- 1년 이내 두편의 설교 (동영상 link or mp4)
- 목사 안수 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 증명서
- 목회자 2명의 추천서 (preferred now, or later upon request)

제출기한 2022년 8월 31일

접수방법 이메일(모든 서류는 PDF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waychurch.calling@gmail.com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NOW OFFERING

IB PYP(K~5TH) • MYP(6TH~10TH)
DP(11TH~12TH)

100% UC대학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C



Now Enrolling

“이래서~ 믿을 수 있구나!”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를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 (타사립학교 대비)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 (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IB 프로그램이란?
전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3119 W. 6th Street,
LA, CA 90020

213.487.5437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Est.1999

e-nca.org

“英 폭염으로 들불 발생... 들판 중앙 십자가는 무사”



©인디펜던트 영상 캡처

영국 한 지역에서 폭염으로 들불이 일어난 가운데 들판 중앙에 제1차 세계대전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거대한 십자가는 무사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켄트 카운티 렌햄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땅의 많은 부분을 태웠다. 하지만 지난 1921년 산비탈을 깎아 만든 분필로 만들어진 렌햄 크로스(Lenham Cross)에서 불길은 멈췄다.

영국의 일간신문인 인디펜던트지(The Independent)가 공개한 드론 영상은 폭염으로 인한 화재의 여파를 보여준다. 공개된 영상에서 십자가가 그려진 부분은 화재의 피해가 미치지 않았다.

61m x 21m 크기의 이 기념물은 영국 국립유산목록(National Heritage List for England)에 등재되어 있으며 히스토리 잉글랜드에서 관리하고 있다.

현지언론인 켄트온라인(Kent Online)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렌햄 주민 42명의 이름이 기록된 철제 난간이 기념비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14명의 현지 주민 이름이 새겨진 두 번째 기념비가 추가됐다.

1960년, 원래 십자가 밑에 있던 한남용 기념비를 렌햄 세인트메리 교회 북쪽 입구로 옮겨 기념비에 이름이 새겨진 주민들의 유족이 나이가 들어도 언덕을 오르지 않고 계속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십자가는 적의 항공기에 표지로 식별되지 않도록 가려졌다. 1983년 십자가는 40톤의 분필로 개조되었다.

수십 년 간 기념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다 2017년 히스토리 잉글랜드는 십자가를 국립기념물과 전쟁기념물로 등록했다. 당시 교구 의원인 마이크 코켓은 “십자가는 항상 방문자에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장소 중 하나인데도, 렌햄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완전히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이라크에 ‘첫 현대 칼데아어 성경’ 보급한다

“IS가 빼앗은 성경, 더 읽기 쉬운 언어로 돌려줄 것”

한 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한국VOM)는 9일 이라크 현지 기독교인 및 동역 단체인 호주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Australia)와 협력해 이라크 북부 3만여 기독교 가정에 최초의 ‘현대 칼데아어(Chaldean dialect) 성경’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이 사역은 단순한 성경 배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중동의 기독교를 되살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이 사역의 목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인 정착지 중 하나인 이라크 북부 니스웨(니네베) 평원의 기독교 가정에 3만 권의 성경을 인쇄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이번 배포 계획에는 아르빌시 아인카와 지구도 포함돼 있다. 아인카와 지구는 유서 깊은 기독교 마을로, 니스웨 평원에 거주하던 기독교인 다수가 IS 테러리스트들의 전쟁과 공격을 피해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라크 북부 니스웨 평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곳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성경을 소유해 본 적도, 일상 언어로 된 성경 말씀을 들어 본 적도 없다. 우리가 배포할 성경은 교회 강대상용이 아니라 기독교인 가족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가족 성경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구 아랍어, 즉 그곳 사람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어(과거에 쓰였으나 현재 쓰이지 않는 언어)나 고어라고 일컫는 ‘크소보노요’로 기록돼 있다. 구 아랍어는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의 모국어였지만, 사람들의 일상 언어는 수 세기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오늘날 니스웨 평원 기독교인들은 동아랍어의 갈래인 칼데아 방언과 아시리아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 배포하는 성경은 이



지역 기독교인들의 일상어로 번역된 최초의 인쇄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는 이 사역을 통해 배포할 예정인 3만 권의 성경 가운데 5천 권에 해당하는 비용, 총 47,500,000원을 감당할 계획이다. 이 사역을 위한 헌금은 9월 말까지 진행된다. 성경은 한 번에 5천부씩 인쇄되고 있으며, 배포는 2022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집과 교회와 상점을 재건하도록 국제 원조단체들이 계속 돕고 있으나,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신하기 전에도 갖지 못했던 것, 즉 자신들의 일상 언어로 번역된 가족 성경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녀는 “현대 칼데아어로 가족 성경이 출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라크 기독교인 대부분은 칼데아 가톨릭교회나 시리아정교회 출신이다. 시리아 정교회 기독교인은 집에 가족 성경을 갖고 있지만, 그 성경은 소위 ‘사어’나 ‘고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직자들이 교회에서 번역해 주는대로만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우리는 IS가 이 지역의 교회들에서 빼앗으려 했던 성경을, 더 읽기 쉬운 언어와 형태로 이 지역 기독교인들의 가정에 다시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West Hill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Hyehwa Pyeonggang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Juan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Chunghyunseon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사우스베이 지역

Gardena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Gardena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Dahyang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Dolos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Ehn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Corneston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Torrenc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Torrence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오렌지카운티 지역

Thanksgiving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Namgam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Lord's Light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Mission Ways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Downey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Laguna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Bevel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Onnuri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Older's Center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Hyehan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Hamgeom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Namgam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Gaswon Church advertisement with pastor photo and contact info.

Religious news section header and contact info.



■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22년도 상반기 단기선교를 되돌아보며”

필자가 섬기는 인터콥 인터내셔널 선교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9주간 비전 스쿨을 진행하였다. 북미주 60개 지역에서 약 1,100명(다민족 400명 포함)이 수료했다. 그들 중 약 700여 명이 4주간 훈련을 마치고 FO(현장 단기선교)를 나갔다. 6월 팀부터 시작하여 8월 팀까지 자신들이 입양한 종족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길고 긴 스쿨과 훈련과 시간, 재정을 바쳐 정성을 다한 그분들의 헌신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필자도 6월에 MIT 팀에 합류하여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다녀왔다. 필자의 큰 딸 가정은 우즈베키스탄으로 다녀왔고, 그리고 아내는 I 국에서 현재 선교사역 중이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선교회 대표

한 팀워크 훈련을 받으며 인성과 영성의 힘을 구축한다.

필자가 많은 나라들의 선교사들을 접하며 얻은 생각은 선교사는 독불장군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독으로 선교하면서 재정을 개인이 담당하는 형태의 선교사 재정관리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인터콥 선교회의 재정 시스템은 가장 선명하고 선교사가 재정에서 깨끗하게 자유로울 수 있어서 선교의 열매가 좋다. 선교지에서 현지 영혼들에게 물질 위주의 선교를 지양한다.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인격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전략만이 있을 뿐이다. 현지 영혼들이 물질의 맛에 빠져 타락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현지 영혼을 전도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 전도 후에 그들을 다시 전도자로 세우 열방의 다른 나라로 단기선교사로 파송한다. 그들 또한 자신의 선교비를 자비량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어렵게 만든 재정으로 그들도 열방을 향한다. 현재는 열방에서 훈련받고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수가 미주의 인원과 거의 비슷할 정도이다. 선교의 결실은 현장에 예배자들이 세워지는가에 달려있다. 어제까지는 알라를 향해 절을 하던 이들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 땅에 생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 가사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어떤 종교 지도자는 종교 간의 평화 차원으로 타 종교 권에서의 전도 불가를 선언했다. 그는 성경을 배격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사도바울과 수많은 제자의 순교를 업신여겼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묵숨을 다해 수행할 것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원작 소설도 유명하지만 영화로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킨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20세기 최고의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명작입니다. 헤밍웨이는 스페인 내전과 1차 대전 중군 기자와 참전 군인으로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헤밍웨이는 자신의 전쟁 경험을 토대로 “무기여 잘 있거라!”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남겼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배경은 스페인 내전입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0년대에 새로 수립한 좌파 민주공화국 체제에 반발한 세력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킨 자유전쟁입니다. 1936년에 발발한 이 전쟁에 헤밍웨이를 포함해서 조지 오웰, 생텍쥐페리, 앙드레 말로 등 다수의 작가들이 참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헤밍웨이는 중군기자로 전투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서 내전이 끝난 다음 해인 1940년에 소설로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작품에서 헤밍웨이는 전쟁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다수의 비평가들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 가장 풍부하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진실한 소설이라고 평가합니다.

소설의 간략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스페인과 스페인 사람들을 유달리 사랑했던 로버트 조던은 미국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소식을 들은 로버트 조던은 휴직을 하고 참전했습니다.

로버트는 폭파병으로 배속되어 전쟁에 투입됩니다. 지휘관은 로버트 조던에게 다리 폭파를 지시했습니다. 이 작품은 로버트가 폭파병의 임무를 수행했던 3일 동안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버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인근 민병대 게릴라 부대를 찾아가입니다.

로버트는 마드리드와 세고비아 사이 어느 계곡에 있는 다리의 폭파를 명받았지만 쉬운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작전을 돕기로 했던 게릴라 부대장 파블로는 로버트의 작전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반면 파블로의 아내인 필라르와 다른 대원들은 조던의 작전에 동조했습니다.

이 게릴라 부대에서 로버트는 파시스트에 의해 아버지와 어머니

버트는 스스로 이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남아서 싸우는 동안에 아군이 후퇴하도록 엄호할 것을 계획합니다.

로버트는 마리아를 불러 눈물의 이별을 하며 마리아를 설득하여 일행과 함께 떠나보내고 그는 홀로 남아 적군을 기다립니다. 그는 아픈 다리로 사격을 하면서 동료들이 탈출할 시간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마리아와 일행을 보낸 로버트는 마지막 순간까지 방아쇠를 당기며 죽어갑니다. 그는 생명을 바쳐 사랑하는 마리아와 아군들을 보호했습니다. 마리아와 전우를 위해 희생하는 로버트의 모습이 오랜 여운으로 남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17세기 성공회 목사 시인 존던의 묵상집에 있는 말입니다. 존 던 목사가 자신의 투병기에 쓴 묵상집(Meditation 17)에 나옵니다. 17세기 영국 사회는 죽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군가 사망하면 마을 교회 종이 울렸고 종소리가 들리면 누가 죽었는지 알아보았답니다. 존던 목사는 “묵상”에서 종이 울리면 누가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말고, 남의 종소리라고 여유도 갖지 말고, 자신의 종소리로 이해하라고 권합니다. 모든 사람이 종소리(죽음)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소설 제목은 로버트의 생명을 건 마지막 전투의 의미를 묻습니다.

이 작품에서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파블로는 죽음을 회피했습니다. 로버트는 당당하고 가치 있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것은 삶의 전반에 해당되는 기준입니다.

둘째, 이 작품은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대장 파블로는 전혀 대장답지 못합니다. 오히려 필라는 전사합니다. 목사라는 이름보다 목사다운 삶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라는 이름보다 성도다운 삶이 더 중요합니다. 자신답게 사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셋째, 이 작품은 사랑의 힘을 가르칩니다. 사랑은 위대하고 강력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전쟁도 죽음도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맞는 죽음은 송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넷째, 이 작품은 타인을 위한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로버트 조던은 참전도 전투도 그리고 마지막 사격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기독교교육의 리더십(C.A.D.A.) 성립학부, 선교학부,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일일상담: 조성호 박사 716(28)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라인과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목적(1)

출애굽기 9:13-26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1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4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화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5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던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16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중략)...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 대로 두었더라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23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24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25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무너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 26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종처럼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 세월이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 왜 최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의 노예 신세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 신앙의 초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후사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있나 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5-6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만한 다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실수 중에 실수이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창세기 15:9-14 말씀을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를 드리면서도 정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지만 또 다른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증거(표적)를 보기를 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죄 값으로 팔려가게 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는 세월동안에는 호적이 없었습니다. 호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법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에 있었기에 영적인 소망도 없이 애굽의 멍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죄 값은 이처럼 불행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한 역사가 시작될 때 애굽에서 400년 세월을 종살이 하느라 애굽인들의 종으로 의식화 되어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 절대주의 신앙으로 깨우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해주셔도 그들이 싫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궁에서 생활하며 세상 문물의 최고 학문을 수학(修

學)하며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고 미디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40년간 하게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섬겨야한다는 명령과 지시를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기사(奇事)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결론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경고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여유로운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애굽 사람들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출9:20-21).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가하는 것을 천하만민이 알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거역하면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리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자들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모든 악한 균을 없애주시고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을 통해 믿음의 뿌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얻고 병고침의 능력을 받았을 때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나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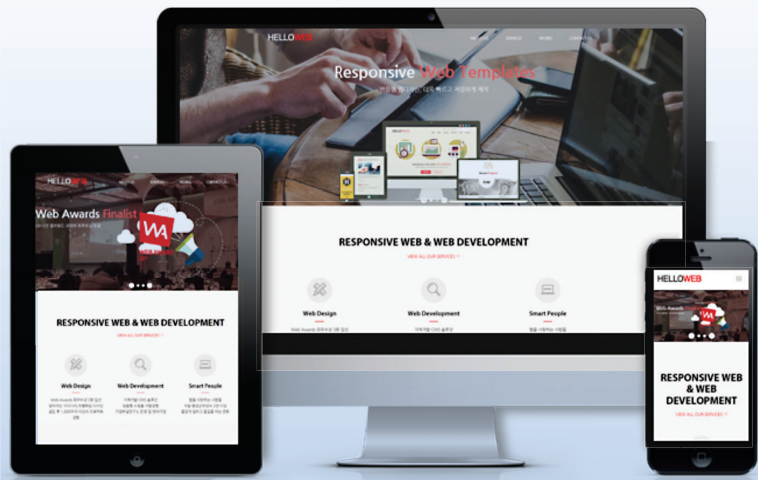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 디 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미 국 신 문 설 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교회 웹사이트 제작 \$300

개척교회 및 소형교회 목회자님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해 드립니다.



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PC, 태블릿, 모바일 등 기기에 맞게 디스플레이 되는 웹사이트)

제작비	\$300 +
기본사항	Front Page + 5pages (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추가사항	1Page 초과시 \$50 추가 한영 페이지 제작시 \$100 추가(컨텐츠는 교회에서 취야함) 소개/비전/사역/설교/게시판/갤러리/교회소식 등
관리비	\$20/월(호스팅) - CPanel, SSL, Mail \$30/월(관리비) - 선택가능

웹사이트는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Cpanel 및 Admin 정보 제공함
(관리내역: 비 정기적인 웹사이트 콘텐츠 수정 및 Update)
정기적인 유지관리 요청시 별도 협의

계약 외 서비스

월 관리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웹사이트 수정은 유료임

Text 수정 : \$10 +
이미지 작업 : \$20 +
기타 서비스는 내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강준민 칼럼

창조적으로 반복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가 말씀 목상을 통해 배운 지혜는 반복의 지혜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히브리인들의 말씀 목상은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조용히 읊조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시 119:15). 말씀을 반복해서 조용히 읊조리는 것은 성경 암송의 비결이며, 말씀 목상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집중해서 묵상하며, 반복해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작은 반복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반복의 원리가 성경에서 강

조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듭 작은 것을 강조합니다. 작은 씨앗(막 4:31; 요12:24),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눅 16:10; 마 25:21)을 강조합니다. 작은 반복이 누적되고 축적되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아름다운 성취를 위해서는 작은 것 속에 담긴 잠재력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작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믿어야 합니다. 시작한 것을 끝까지 성취하는 분들의 특징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것을 꾸준히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또한 놀라운 성취를 이룬 분들은 그냥 반복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반복합니다.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창조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은 반복하는 중에 발견한 잘못된 자세나, 잘못된 방법을 고쳐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태도와 똑같은 방법은 똑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만일 그 결과가 아주 좋다면 계속 반복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왜 결과가 좋지 않은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생각, 더 나은 태도, 그리고 더 나은 방법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코치를 받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받는 것

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고쳐가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적 반복입니다. 그때 아주 탁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창조적으로 반복하는 것의 유익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창조적 반복을 통해 우리 두뇌가 개발됩니다. 창조적 반복은 탁월한 학습 원리입니다. 또한 탁월한 학습 방법입니다. 반복을 통해 우리 기억력은 향상됩니다. 우리 뇌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계속 개발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릴 적에 반복해서 토라를 읽고 암기하게 만듭니다. 그 과정을 통해 두뇌가 개발됩니다.

둘째, 창조적 반복을 통해 좋은 습관과 성품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형성한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습관을 형성하느냐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복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에 따라 관행된 존재다. 따라서 우수성이란 단일 행동이 아니라 바로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 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창조적 반복을 통해 탁월함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알고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한 분야에 집

중하고 반복해서 1만 시간을 투자할 때 탁월한 경지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탁월함에 이르는 길은 거의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 재능을 연마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재능은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을 거쳐 빛을 발하게 됩니다. 탁월함에 이룬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거듭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창조적인 반복을 거듭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보통 사람이 다 갈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성공을 위한 훈련에 대한 의지는 약합니다. 탁월한 성취는 창조적인 반복을 훈련한 결과입니다.

넷째, 창조적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형통이란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의미합니다. 창조적 반복을 통해 우리는 생각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형성하게 됩니다. 과업 성취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합니다. 많은 걸림돌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심력과 영력이 중요합니다. 말씀 목상을 반복할 때 생각의 근육과 심력과 영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창조적 반복을 통해 과업이 성취되는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말씀 목상 속에 담긴 창조적 반복의 지혜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메타버스 속 MZ 세대 시리즈 5-①

메타버스 속 위험 요소 4가지

메타버스 속 MZ 세대는 어떤 위험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까요?

1) 메타버스 중독입니다.

도박을 하고, 게임을 하고, 술을 밤새워 마시면,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중독’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 속에 하루 종일 살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문명이나 건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할까요?

컴퓨터가 나왔을 때, PC방에서 밤을 새우며 신문명을 즐기려던 자녀를 우리는 중독자로 보았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는 젊은이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중독자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포노 사피엔스〉, 최재봉 저자는 다음 세대가 스마트 폰 혹은 미디어 중독자가 되도록 놔두어도 좋다고 합니다. 마커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다 자신의 분야에 중독 성향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쏟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독은 95% 사람들이 부정적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마커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유아기, 청소년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전두엽이 다 개발되지 않았을 때, 미디어 혹은 스마트폰에 과다 노출은 오히려 인간의 뇌를 파충류의 뇌로 단순화 시킵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단절이 되고, 현실 속 친구들과는 단절이 되고요. 해야 할 학업, 직장 일과 멀어질 수 있다면, 중독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메타버스를 통해 재미도 즐기지만, 돈도 벌 수 있기에 더 점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븐 테크〉책에서 공저자 김승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MZ 세대는 현실보다도 자신의 아바타가 대접받는 메타버스에 익숙하다. 그래서 리니지 같은 게임을 보면 레벨이 높을수록 게임하는 시간이 자꾸 올라간다. 그곳에서 대접받는 기분을 오래 느끼고

싶기 때문이다. MZ 세대에게 메타버스는 현실의 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그곳에서도 NFT와 암호화폐가 연동되어 경제활동도 할 수 있으니 굳이 현실에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게임의 재미, 인정 욕구 보상, 그리고 금전적 보상이 일어나기에, MZ 세대는 메타버스 세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2) 메타버스 속 고립과 고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메타버스 안에 아바타를 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아바타는 가면과 같아서 현실의 자신과 분리될 수 있습니다. 다중 인격자가 되도록 할 수 있고요. 현실 세계에서 고독으로 메타버스 안에 들어 오지만, 여전히 외롭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3) 메타버스 세계관 속 세계관과 가치관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구글의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어릴 때부터 몬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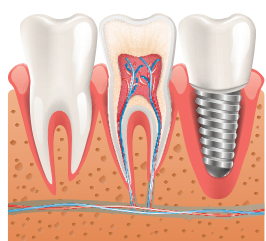
리 교육을 받았습니. 그렇기에 창업자 두 사람은 교육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디어를 통해 구글을 운영하고, 직원들도 정신적으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직원의 70% 정도는 자녀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어린 나이에 미디어와 메타버스 세계 속에 들어가면, 세계관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 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김영한 목사
품은 교회 담임
Next 세대 Ministry 대표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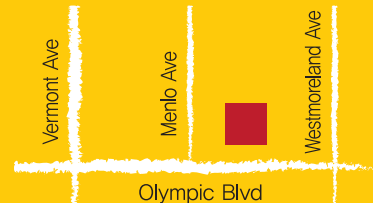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치과의사 이동희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진유철 칼럼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바른 교훈의 목적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다윗은 30살에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힌 죄인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빠르게 당대 최고의 나라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긴 광야에서의 세월이 크게 보이는데 30살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가 의도한 일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

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일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조지폐를 식별하려면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연구해야 하듯이 인생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교훈만을 따르고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의 목적 3가지를 전해주었는데,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껌데기나 외모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산상수훈의 8복 중 다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마5:8) 하나님을 보면 삶이 쉽고 가벼워지지만, 세상의 명예나 권력, 유희와 권모술수가 보이면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됩니다. 또 세상은 유능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인 청결한 사람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입니다. 비록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인생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오차가 생기고 작동을 안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불과 몇 십 년 전만해도 ‘죄’라고 규정되었고, 대중들에게 그리 직접적인 이슈가 되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문화적인 악한 영향으로 급속도로 사람들의 양심이 무뎠어지는 변화를 보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믿음을 없앨 수는 없기에 거짓의 아버지며 거짓말쟁이인 원수마귀는 믿음에 거짓을 넣습니다. 세리나 창기조차도 다 받아주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무섭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외식과 위선으로 믿음에 거

짓을 더하였는데,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선”이란 헬라어 ‘히포크리시스’는 ‘가면을 쓰다.’는 말로, 배우가 연기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믿는 척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경건의 3요소인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100% 실패요 거짓말 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이 침투하는 가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에 평소예 순종이 잘 훈련되어야 좋은 관계 속에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의 목적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길지 않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김한요 칼럼

맘 따뜻한 선물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지난번 세미나 때, 김양재 목사님이 선물 하나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은 청주의 한 자매가 목사님이 미국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택배로 선물을 보내왔으며, 저

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캘리그라피를 써서 예쁜 액자에 넣어서 보내온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요즘 캘리그라피를 하는지라 얼마나 잘 쓴 것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이 선물을 보내준 자매는 장애로 몸이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더 값지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자매가 보내온 액자를 책상 앞에 놓고 보면서, 절친이 보내온 선물인 양 친근함마저 느낍니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옵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개업할 때면, 가게에 들러 액자를 고르고, 그려 놓은 그림 중 적당한 것을 골라서, 그날 전해드릴 말씀을 캘리그라피로 적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을 사이즈에 맞게 액자에 넣어서, 꼼꼼하게 강력 테이프로 붙이고, 기도하면서 액자를 만

들고 예쁘게 포장해서 심방 후 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알기에 태평양을 넘어, 심부름 하시기도 너무 황송한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 전달 받으니, 그 따뜻한 정성스런 손길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자매의 사랑과 기도가 듬뿍 담긴 선물을 보며, 오늘도 감사가 넘칩니다. 더 감사한 것은 액자에 말씀이 적혀 있어서 매일 새 결심을 하게 하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지 못한 자매의 작은 선물이지만 매일 또 한 사람의 하루를 감사와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애를 지고 살아가는 진실 양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게 하

시고, 사도바울이 가진 몸의 가시가,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능력 있게 쓰임 받았듯이, 장애가 하나님 능력의 분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창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중의 선물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아멘 해야 함에도 그 간단한 감사기도가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얼굴도 모르는 분의 선물이 오늘도 우리 생애 최고의 선물인 주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선물이 됩시다. 우리의 행동이 사랑의 글씨가 되고, 은혜라 부르는 액자의 캘리그라프가 되어 한 자 한 자 새겨져 그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려지는 선물이 됩시다.

연재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기드온동족선교 박상원 목사

이 모습이 바로 예수에게 온전히 미친 사람의 모습 아니겠는가. 나는 이따금 철갑이를 떠올릴 때면, 내게 스스로 묻곤 한다.

‘년 철갑이처럼 복음을 위해 똥을 먹을 수 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감히 말한다. 하지만 목숨을 바치기 전에 먼저 똥물부터 마셔 보라고 하면 과연 마실 사람이 있을까? 나 역시 똥물을 마셔 봤다. 하지만 철갑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일부러 마신 것이 아니다. 조선의 법을 어겨 감방에 갇혔을 때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는지 운신할 힘조차 없자 매를 맞은 어혈을 풀기 위해 안전부들이 똥물을 내 입에 억지로 흘려 넣어서 먹은 것이다. 이미 똥을 먹어 보았음에도 나는 철갑이처럼 일부러 마시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육신은 똥을 생산하는 기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사람이 똥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가? 우선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서 나중에는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 한마디로 똥독에 오른 것이다. 똥을 먹으면 매를 맞은 어혈이 풀린다는 속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내 경우 어혈이 풀리기는커녕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더니 통통 부어올랐다. 더구나 고무풍선처럼 가스가 차서 거의 죽다 살아나다시피 했다. 철갑이는 이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우리의 훌륭한 우편배달부가 되어 주었다. 철갑이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서

거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갑이에게 일을 맡길 때마다 나는 철갑이 입에 똥을 퍼넣는 듯해서 마음 한구석이 늘 찼했다. 그 후 나는 북한을 탈출해 산막에 살게 되었는데, 이때 북한으로 보낼 책이나 성경책을 철갑이와 미리 약속한 장소에 가져다 놓곤 했다. 그러면 철갑이는 책들을 북한으로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석근 목사가 집필한 《지옥문을 닫아 주소서》라는 책을 두 권 구해서 국경을 넘어온 철갑이에게 넘겨주었을 때다. 내가 건네준 책을 품고 북한으로 돌아가던 철갑이가 경비대에 발각되고 만 것이다. “이 밤에 어디를 그렇게 쏘다니! 똥 싸다가 깜짝 놀랐잖아! 당장 꺼져 버려!” (계속)

미주 기독교일보 후원

한국 헤민병원

VIP종합검진 초특가 이벤트

“한국 방문 한번으로 보고싶은 가족과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잡으세요.”

검진내용

- ♣ CT 촬영(뇌, 폐 선택)
- ♣ 종양표지자 암검사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 ♣ 특수 초음파 검사
질, 갑상선, 전립선, 유방(27세 이하)
하복부(간장, 비장, 췌장, 담낭, 신장)

- ♣ 수면 대장내시경
- ♣ 수면 위내시경
- ♣ 방사선 촬영(유방, 흉부)
- ♣ 골밀도
- ♣ 70개의 기본검사

검진비용

\$950
\$350

\$100불 할인예약증
\$250 검사당일 납부
쿠폰발행일로부터 5년 유효
(양도 양수가능)

(환율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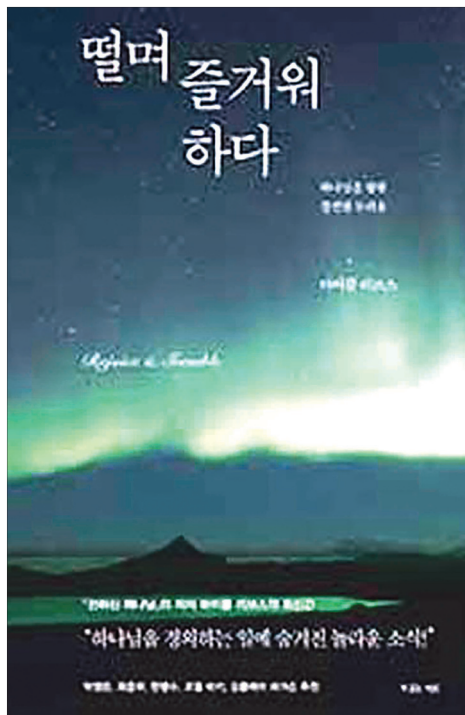
새 생각, 새 의술

헤민병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8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하차 4번 출구방향 으로 직진 신호등 건너 150m 도보
자세한 내용은 213.341.5123로 문의해 주세요.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핵심, 하나님 향해 '올바른 두려움'



떨며 즐거워하다
마이클 리브스 | 송동민 역
복있는사람 | 258쪽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의 감각을
되찾는 일보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

예전부터 무척이나 궁금해 왔던, 하지만
어디서도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던 것을 저
자가 이 책을 통해 다루고 있다는 걸 알아
챘을 때, 독자는 항상 말할 수 없는 기대감과
호기심을 가지고 흥분하며 책장을 넘긴다.
마이클 리브스의 <떨며 즐거워하다>가
그렇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명령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잠
1:7; 9:10),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고(전 8:1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고(시 34:9),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시 115:13),
그들의 도움과 방패 되신다(시 115:11).

사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
을 권했다(행 18:13).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
의 종들을 가리켜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라 부르시고 찬송을 명한다(계 19:5).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마이클 리브스는 <떨며 즐거워하다>를 통
해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조엘 비
키와 더불어 이제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리
브스는 런던 윌소울스 교회 목사이자 연합
신학교 학장, 교수로서 조직신학, 역사신학
에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오래된, 그러나
성경에 기초한 열정적인 신앙과 신학을 현대
독자에게 전수하고 있다.

국내 여러 저서가 소개됐는데, 가장 최근
엔 지평서원에서 조엘 비키와 함께 쓴 <청교
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나왔다.

<떨며 즐거워하다(Rojoice & Tremble)>
의 초반 구성은 매우 단순한 편이다. 먼저 겁
을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 중 무엇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성경의 가르침, 하

나님을 두려워함에 관한 상반된 두 가지 가
르침에 직면하게 하는 1장 '겁내지 말라!', 이
어서 최악된 두려움이 무엇인지(2장), 올바
른 두려움이 무엇인지(3장) 구분하여 설명
한다.

4장과 5장은 이 책의 다이아몬드와 같다.
올바른 두려움의 핵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
심, 곧 그분의 신성에 있다는 걸 먼저 강조
한다. 피조물과 철저히 구별되신 거룩하고
무궁하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압도되
는 것이 바로 올바른 두려움이다(4장). 끝이
어 나오는 5장은 4장의 내용을 참으로 적절
하게 보완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떨며 즐
거워'할 수 없다. '즐거움'은 친밀한 관계에
서만 맛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신자는 우리
와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독자를 아낌
없이 내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압
도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오는 경이감과 경
외심이 '떨며 즐거워'하게 만든다.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단순성, 곧 하나님
의 속성은 분리할 수 없고 혼합할 수 없는
하나를 이룬다는 원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데 실패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
리가 두려워할 만한 속성이 있지만 사랑이
함께 있어서, 적당히 두려워하면서도 적당히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은 최악 된 두려
움은 몰아내고, 즐거워하고 경이로워할 수
있는 두려움만 갖게 한다. '두려움'은 사라지
고 '경외심'만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두려움, 경
외심을 키워 갈 수 있을까? 리브스는 6장을
통해 이것을 다룬다. 특별히 설교자에게 "두
려움에 찬 설교와 두려움을 심어 주는 설교"
를 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한다. 공포심이 아
닌 경외심을 심어주는 설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설교
를 하라는 것이다(173쪽).

또 저자는 신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두
려움 없이 습득한 모든 지식은 가짜이며, 결

국에 그 거짓됨이 드러난다(187쪽)"라고 일
침을 가했다. 참으로 옳은 말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어떻게 합당한 두려움이 없
을 수 있겠는가?

저자가 초반에 적절히 평가한 것처럼, 오
늘날 세상은 "건강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므로",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에 불안과 신경질적 반응, 공포심
을 갖게 됐다(23쪽).

하지만 교회는 거짓 두려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당당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
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두려우신 성품에 참
여함으로 더욱 담대하라고 저자는 7장에서
권면한다.

이 책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절
정에 이르는 날, 온전히 창조주 그리고 아버
지이신 하나님 앞에 떨며 즐거워하게 될 영
원을 노래한다. 죄인이 영원히 맛볼 두려움
과 의인이 영원히 맛볼 두려움의 격차가 얼
마나 클 것인가?

보이는 것에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믿음으
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누리게 될 환희와 기쁨의 크기는 얼마나 클
까? 우리는 올바른 두려움의 완성을 그 끝없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질병이 가져온 두려움 외에
도 우리 경제, 치안, 건강, 미래에 대한 수많
은 두려움에 갇혀 살고 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놓는다는 말씀처럼(요일 4:18),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두려움, '떨며 즐거워
하는' 사랑이 하나님 외의 모든 헛된 두려움
을 몰아낸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가 그 두려움을
키워가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서 영원
히 환희와 기쁨으로 맞이할 하나님을 경외하
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8월, 작가들의 말말말③]

◆김유진 - 어웨이크

모두가 하
라는 대로 다
하고 있는데
왜 내 가방
은 점점 무거
워지는 걸까?
왜 걱정은 쌓
이기만 할까?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까?
모두가 가는 길, 옳다는 길로 가



고 있는데 왜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까? 만약 모두
가 맞는 거라고 말하는 그 길이
진정 내게도 맞는 거라면 나한테
도 그들과 동일하게 성공이 주어
져야 하고, 그들이 잘한 만큼 나
역시 최선을 다했으니 만족스러
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왜 그
렇지 않을까?

불안해졌다. 채우면 채울수록
불안해졌다. 그렇게 가방은 점
점 더 무거워져만 갔다. 어느 순
간 가방 개수까지 늘었다. 어개
에 가방을 맨 채 양손에는 다른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방이 생기면 양쪽 겨드랑이 사
이에 끼웠다. 다시 새로운 가방
이 생기면 무슨 수를 써서든 질
질 끌고 다녔다. 내 몸과 마음엔
단 한 줌의 여유조차 생길 틈이
없었다.

◆윌리엄 로우(저자), 정은영(울
린기) -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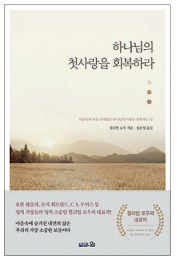
삶은 단 두 가지 상태로 존
재한다. 즉 하나는 본성적인 삶

이며, 다른 하나는 그 안에 하
나님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
이다.

또한 인간은 본성과 하나님 중
하나가 살아 역사하도록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마음속에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
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세상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은 없다. 인생은 계속되
며 어떤 식으로든 늘 현실로 나
타난다.

선은 일종의 울림이다. 또한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사랑의 영으로 호흡하기
까지 강렬한 본성과 맞서 투쟁
하는 힘에 불과하다. 사랑은 오
직 축복과 선이며 하나님의 본
성이다. 따라서 하나님인 사랑
의 영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해
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인
간은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실
제로 하나님
을 예배할 수
없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인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생명보험 IRA, Annuity
20 YEAR TERM LIFE INSURANCE
AL FLEXIBLE LIFE INSURANCE
Lic.#0B33695 Consultation Specialist
Jun Lee (213)361-7771 joyjoe88@yahoo.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junimmedia@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업무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기독교의 자폐성 장애 대응

기독교, 장애인 구제와 봉사 의무로 힘써 수행 역사 장애인 차별과 편견 반대 신념, 기독교적 기원 확실 기독교 이웃사랑과 공휴·돌봄 정신, 사회에 필요해 자폐인들 극복 수기, 기독교적 돌봄 덕 내용 압도적

◆자폐성 장애와 서번트 증후군: 극소수의 장애 극복사례를 선보이는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특별한 활약을 그린 법정 드라마로 케이블 방송가에서는 근래 보기드문 높은 시청률(전국 15.1%)을 기록한 작품이다.

첫 회 시청률은 불과 1%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입소문을 타며 시청자들과 언론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어떤 점이 시청자의 마음을 붙들었을까?

무엇보다 아스퍼거 신드롬(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는 자폐성 장애)을 지닌 사회적 약자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상인 동료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의뢰인들의 억울함과 고민을 풀어주는 장면들이 선사하는 카타르시스가 가장 큰 인기 요인일 것이다.

다음으로는 아스퍼거 신드롬과 서번트 증후군(자폐성 장애의 보상기제로 뇌의 특정 부분이 특별히 발달해 탁월한 기억력이나 예술적 재능을 보이는 증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한편으로는 비정상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천재적인 당찬 젊은 여성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박은빈 배우의 훌륭한 연기가 흥행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이미지는 성평등과 여성의 자주적인 삶을 바라는 이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우영우>와 같이 아스퍼거 신드롬과 서번트 증후군을 동시에 갖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작품은 과거에도 종종 발표되어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영화 편에서는 <레인 맨>(1987), 드라마 편에서는 한국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리메이크된 <굿 닥터>(2013)가 있다.

이처럼 서번트 증후군을 소재로 삼는 영화나 드라마는 주인공이 장애의 반대급부로 주어진 천재성에 힘입어 세상의 편견과 멸시를 극복하고, 장애가 없는 이들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성취를 이룬다는 점에서 독창적이고 감동적인 서사를 전하기 마련이다.

실제 현실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자폐성 장애인의 위대한 성공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토마스 위킨스(1849-1908)나 코디 리(1996-) 같은 이들은 한 번 들은 선율을 그대로 기억해 즉석에서 피아노로 재현해 유명해졌다.

야마시타 기요시(1922-1971)와 스티븐 윌트셔(1974-) 등은 한 번 본 장면을 사진



아스퍼거 신드롬과 서번트 증후군을 지닌 변호사의 장애 극복 서사를 선보이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처럼 그대로 기억하며 화가로 대성했고, 대니얼 태밋(1979-)은 11개국 언어에 능통하고 원주율을 22,500자리까지 암송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이런 서번트 증후군의 사례가 모든 자폐성 장애를 앓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거의 찾아보기 힘들 만큼 희박하다.

자폐성 장애를 앓는 이들 대다수는 분명 아무런 천재성을 보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혹시 그런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특별한 성취를 이룬만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우영우>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사실은 서번트 증후군을 앓는 이들의 낭만적인 성공담이 아니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상당한 관심이 쏠릴만큼 우리 주변에 발달장애나 지적장애, 혹은 ADHD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폐성 장애와 기독교적 돌봄: 정신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자폐성 장애인의 돌봄

자폐성 장애를 비롯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행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서적, 정신적 병증 사례는 특별히 선진국에서 그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만혼과 노산의 증가에 있다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부모 가운데 남성 편이 많으면 자녀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간에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아직 정설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인 증거로 볼 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물론 전혀 다른 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부모의 유전적 문제나 영유



<우영우>에서처럼 서번트 증후군에 기인한 천재성으로 자폐성 장애를 극복한 사례는 현실에서 극소수만 존재한다.

아기 아동의 환경 등 다양한 다른 요인이 존재하므로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나라의 산업과 인구구조가 선진화될수록 만혼이 일반화되고, 그와 동시에 자폐성 장애를 비롯한 각종 발달장애, 지적장애 아동 비율은 늘어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이 우리 사회가 <우영우>에 주목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은 수의 자폐아동, 발달장애아동, 그리고 지적장애아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현안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한국도 최근 들어 자폐성 장애나 발달장애, 혹은 ADHD 증상을 보이는 아동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워낙 급격하게 줄어들어 절대적인 수치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비율 자체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인다.

물론 과거에 비해 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이 강화되고 그것이 실제 진단 사례로 이어지면서 관련 장애아동 수가 빠르게 증가된 것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관련 장애에 대한 아동 검진 비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때, 자폐성 장애나 ADHD 증상 진단이 줄어들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계는 전통적으로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에 대한 구제와 봉사를 사회에 대한 의무로 여기고 힘써 수행해 왔다. 비록 현대 정신의학 의료계처럼 임상적인 데이터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자폐성 장애인을 비롯한 병자와 약자에 대한 영적인 공휴할 측면에서는 그 어떤 세속의 기구나 전문가 집단보다 앞서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기

독교의 가르침은 오늘날 세속적 차별철폐 이념의 뿌리를 이룬다. 동성애나 극단적 젠더 평등사상,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인들이 수긍하기 어렵지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그리고 장애를 가진 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은 분명한 기독교적 기원을 갖고 있다.

현대 정신의학은 자폐성 장애나 발달장애에 대해 탁월한 검진 및 진단 능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막상 관련 장애를 진단받은 아이들이나 성인들의 치료와 관리,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획기적인 약물치료나 정신의학 기술이 아니라 주변인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이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의 이웃사랑의 가르침과 약자에 대한 공휴와 돌봄의 책임감을 통해 어느 정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선진국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자폐성 장애를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이들의 증언과 수기를 살펴보면 기독교적 돌봄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에 힘을 얻었다는 내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증가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라면?** 프로-지 골드가 실의 활력을 찾어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코사민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원인은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신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 인슐린 저항성 및 해당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를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해당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 + 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남가주지역 교회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한

WE BRIDGE CONFERENCE

주제: 예배 회복과 선교적 삶으로의 결단

@ 토렌스 조은교회 | SEPT. 26th-28th



We Bridge는?

-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로 잇는 공간
- 예배의 회복과 건강한 교회 성장을 함께 돕는 모임
- 연합과 동역을 통해 세상을 살릴 교회의 사명을 결단하는 시간

참가 자격 (남가주지역 교회 대상)

- 예배인원 성인 30명 이하 교회의 담임목회자 및 사모, 연령 59세 미만
- 개척 혹은 설립한지 10년 미만의 교회
- 자체 건물이 없는 렌트 교회로 지금도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건강한 교단의 교회
- 현재 외부 재정 후원이 없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참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 컨퍼런스 참가교회에 한하여 2023년 1월부터 매월 \$500불씩 3년간 재정 지원
- 컨퍼런스 후 지속적인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지원

숙소:

SONESTA ES SUITES
TORRANCE REDONDO BEACH

설교자:

권준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김경진목사, 김우준목사,
오명찬목사, 고승희목사

특강 강사:

이상명 총장, 이상훈 총장,
김섭리 목사, 정한나 사모,
최은희 강사, 존치 목사, 송정명 목사

기획 / 예배 찬양:

ONEHEART WORSHIP



SCAN ME!

컨퍼런스 신청은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기바랍니다.

We Bridge 사역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시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방법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jcjohn@hanmail.net
213-718-1512

Paypal: prozusa1@gmail.com

Venmo: @youngok



WEBRIDGE

CHURCH TO CHURCH

213.739.0403

webridgeinfo@gmail.com

기획: Oneheart Ministry | 주관: 기독교일보, ING, CBS
후원: We Bridge 후원 교회, 한국 해민병원, PRO-Z USA, DB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

등록 마감 8월 25일

컨퍼런스 등록교회 중
50개 교회 선정 후 개별 통보